

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전략

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연구실장
신 광 수

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전략

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
유통연구실장 신 광 수

1. 농림축산물 수출동향

가. 수출동향

(1) 연도별 수출동향

(단위 : 백만불)

구 분	1970	1980	1990	1995	2000	2005	2006
국 가 전 체	835	17,505	65,016	125,058	172,268	284,419	296,811
○ 농축임산물	135	1,204	1,453	1,747	1,559	2,222	2,307
- 농산물	23	586	770	1,087	1,133	1,899	2,011
- 축산물	2	36	73	156	144	173	172
- 임산물	113	582	610	505	282	152	124

(2) 채소류 수출동향

□ 총 수출 : ('96) 46백만불<21천톤> → ('00) 107<50> → ('02) 89<56> → ('04) 127<47>
→ ('06) 134 <46>

○ 오이, 딸기, 가지, 토마토 등 대부분의 신선채소류가 국내 가격 안정 및 수급 안정으로 '00, '01년을 정점으로 수출 감소 추세

- 오 이 : ('96) 4,960천불<2,209톤> → ('00) 9,886<5,807> → ('02) 5,113
→ <3,575> → ('04) 2,504<1,320> → ('06) 682<398>

- 딸 기 : ('96) 5,856천불<1,038톤> → ('00) 9,531<3,470> → ('02) 5,846
→ <2,863> → ('04) 4,166<1,217> → ('06) 5,863<1,038>

- 가 지 : ('96) 698천불<289톤> → ('00) 4,307<2,011> → ('02) 2,797
→ <1,670> → ('04) 2,046<941> → ('06) 840<417>

- 토마토 : ('96) 829천불<306톤> → ('00) 22,341<11,723> → ('02) 7,098
<3,326> → ('04) 8,256<3,010> → ('06) 4,616<1,812>

○ 반면에 파프리카, 멜론은 생산기술의 향상으로 수출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, 최근 또한 환율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악화와 일본의 Positive List System(PLS: 06.5.29) 시행으로 수입자의 수입 수요 감소

- 파프리카 : ('96) 1,287천불<266톤> → ('00) 23,628<6,830> → ('02)31,729<13,627>
→ ('04) 43,301<16,019> → ('06) 45,733<14,604>
- 멜론 : ('96) 180천불<54톤> → ('00) 931<355> → ('02) 1,129<566>
→ ('04) 4,598 <1,425> → ('06) 3,083<1,018>

○ 일본 및 한국의 풍흉에 따라 배추, 양배추는 수출진폭이 크게 나타남

- 배추 : ('01) 1,358천불<3,005톤> → ('02) 452<1,028> → ('03) 193<407>
→ ('04) 4,901<8,717> → ('06) 737<859>
- 양배추 : ('01) 2,494천불<5,567톤> → ('02) 7,293<5,16> → ('03) 304 <720>
→ ('04) 3,116<5,097> → ('06) 1,474<2,574>.

(2) 과실류 수출동향

□ 총수출 : ('96) 62,509천불<63,885톤> → ('00) 45,142<35,063> → ('02) 82,836<66,332>
→ ('04) 85,721<67,747> → ('06) 98,686<65,791>

□ 배는 생산량 증가 및 가격 안정으로 수출증가 추세이나, 사과는 생산량 감소로 수출감소 추세

- 배 : ('96) 9,678천불<3,800톤> → ('00) 17,097<8,734>→ ('02) 34,054<17,425>
→ ('04) 35,238<16,914> → ('06)36,753<16,357>
- 사과 : ('96) 9,731천불<5,822톤> → ('00)1,819<2,339> →('02) 14,246<7,836>
→ ('04) 5,168<2,641> → ('06) 2,234<1,011>

(3) 화훼류 수출동향

□ 총 수출 : ('96) 4,473천불<381톤> → ('00) 28,887<7,644> →('02) 32,121<7,686>
→ ('04) 48,527<8,299> → ('06) 40,468<8,102>

○ 장미, 국화, 양란종의 수출이 각각 1천불을 넘겼었으나 유가상승, 엔화하락, 내수가격 상승 및 국제경쟁 심화로 감소 추세

- 장미 : ('96) 99천불<3톤> → ('00) 10,324<1,197> → ('02) 7,113<1,359>
→ ('04) 11,596<2,195> → ('06)8,847<2,564 >
- 국화 : ('96) 74천불<6톤> → ('00) 4,682<1,009> → ('02) 7,177<2,068>
→ ('04) 9,270<2,157> → ('06)6,954<1,717 >

- 백 합 : ('96) 1,211천불<71톤> → ('00) 4,395<563> → ('02) 6,951<905>
→ ('04) 13,337<1,390> → ('06) 9,716<1,212>
- 난 류 : ('96) 230천불<28톤> → ('00) 4,422<3,078> → ('02) 6,098<2,055>
→ ('04) 10,175<1,865> → ('06) 11,483<2,181>
- 선인장 : ('96) 2,612천불<258톤> → ('00) 2,736<866> → ('02) 2,419<402>
→ ('04) 2,147<361> → ('06) 2,179<229>

(4) 인 삼

- ('96) 112,665천불<2,393톤> → ('00) 78,986<2,078> → ('02) 55,036<2,163>
→ ('04) 89,160<2,168> → ('06) 89,060<1,899>
- 환율 하락으로 수출 재산성의 악화로 일본, 공공지역은 가뭇하였으나 중국, 대만, 베트남, 싱가포르, 프랑스, 스페인 등 신국시장 수요 증가 추세
- 홍 삼 : ('96) 49,936천불<191톤> → ('00) 43,255<163> → ('02) 8,886<52>
→ ('04) 40,882<202> → ('06) 34,495 <103>
- 백 삼 : ('96) 5,359천불<54톤> → ('00) 4,172<62> → ('02) 4,971<53>
→ ('04) 2,594<22> → ('06) 4,397<44>

(5) 건강식품인 식물

- 한류 열풍 및 건강 식품으로의 인식으로 1억불이 넘었으나 기생충알 파동 05년 이후 수출 감소 하였으나, 06년 하반기부터 수출감소세 회복
- 김 치 : ('96) 31,138천불<10,699톤> → ('00) 78,847<23,433> → ('02) 79,318<29,213>
→ ('04) 102,726<34,827> → ('06) 70,349<25,609 >

(6) 산림부산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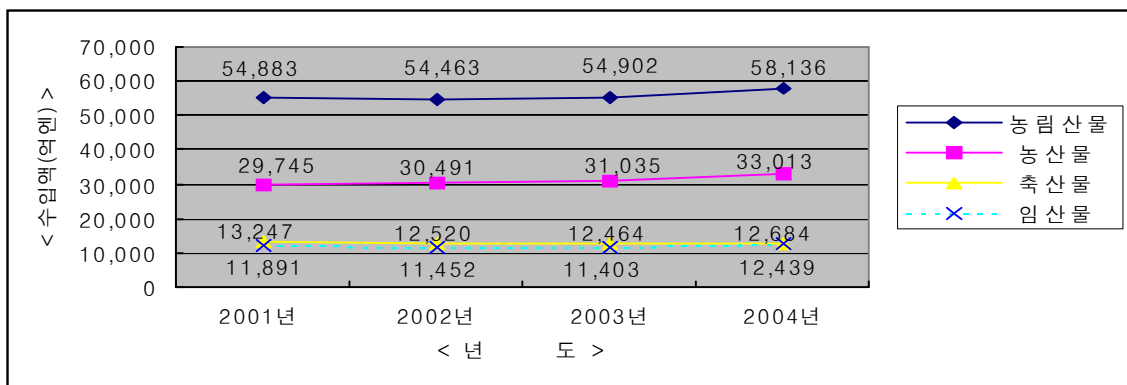
- 많은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에서 가공하기 위한 생산 수준이 늘어나고, 표고버섯은 경쟁으로 감소
- 밤 : ('96) 113,873천불<16,323톤> → ('00) 89,044<15,692> → ('02) 62,855<14,530>
→ ('04) 41,718<16,744> → ('06) 33,342<15,648>
- 표고버섯 : ('96) 9,414천불<356톤> → ('00) 5,012<417> → ('02) 4,306<291>
→ ('04) 4,583<235> → ('06) 3,399<198>

2. 일본국 농림산물 시장 및 수입현황

가. 경지면적 및 전업농가 감소에 의한 수입의존도 확대 추세

- 채소 재배 면적 : ('95) 647천ha → ('00) 540 → ('01) 524 → ('03) 465
- 신선채소 수입량 : ('95) 738천톤 → ('00) 971 → ('01)1,009 → ('03) 926
- 식 료 자 급 율 : ('90) 48% → ('95) 43 → ('00) 40 → ('03) 36

< 일본국 농림산물 수입현황 >



나. 일본 수입시장의 특성

- 식료 자급율이 낮은 품목위주수입 : 곡물류, 사료, 열대과실, 육류 등
- 중국산 등의 저가 농산물 시장 점유율 확대 : 김치, 인삼, 신선채소, 화훼류 등
- 농산물생산대국이 시장점유 : 미국36.3%, EU13.5, 중국11.7, 호주7.9, 캐나다6.1

다. 일본의 국내시장 특성

- 윤리품질의 요구 확산 : 유기채소, 생산이력제, GAP 등 재배과정 투명화
 - 편이 신선 식품(전처리, Cut 채소) 및 위생처리 식품의 소비 증대
 - 수입 자유화로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이 시장 점유율 확대
 - 식품의 규격, 품질이 극도로 복잡하고, 까다로움
- 생산, 유통의 구조변화로 효율성 추구
 - 생산, 유통의 경로가 다소 복잡하나, 대형마트 및 식가공업체와 직거래 규모 확대
 - 생산자 단체의 연합 활동에 의한 업무 영역의 분담,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
 - 노령화의 극심으로 원예, 시설재배품의 감소 추세로 인한 수입 의존도 증

라. 우리나라와의 경합시장 규모

- 한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규모 : 약 179억불
- 대일본 수출 가능액 : 약 10 -13억불(신선과실 및 채소, 절화, 가공식품 등)

3. 농산물 수출의 성과

가. 농산물 수출의 목적

□ 과잉생산물의 수요 확대

-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농업정책은 “더 많은 농산물 생산”에 맞추어져 있었고, 이를 위하여 최소가격지지 등과 같은 가격정책이 강도 높게 실시
- 1993년에 타결된 UR 농산물 협상은 증산정책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결과 농산물의 생산과잉 초래
- 과잉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 중 하나는 생산분야의 확대가 아닌 새로운 수요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
- 농산물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내에서의 새로운 수요의 창출 내지는 수입대체이고,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수요를 찾는 수출농업의 육성임. 그러나 국내 수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농산물의 해외수출 중요성이 부각

□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

- DDA 농업협상
 - 관세인하, 시장접근 확대 등 급속한 개방화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출물류비 등 수출 보조금 감축이 불가피
- 자유무역협정(FTA) 확산
 - 칠레('04.4발효), 싱가포르('06.3발효), EFTA(국회비준절차중)에 이어서 일본('03), 캐나다('04), 미국('06)이 협상중이며 멕시코, 인도, Mercosur이 공동연구계획이며 중국과는 타당성 검토 예정,
 - 농업부문의 FTA협정은 경쟁력이 약한 우리농업에 피해가 우려되나, 체결국가에 따라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음
- 중국의 WTO 가입
 - 관세감축,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이 증가전망. 특히

상해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층 증가와 한류열풍으로 소비계층 확대 가능

- 중국은 저가 농산물 수출, 우리나라는 기술 집약적인 품목 수출로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대일수출에 큰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- 수출농업육성은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정책과제 외 수요 기반 확대 정책 강력 추진
- DDA협상, 한·일 FTA 등 세계시장개방 확대의 대외여건 변화를 우리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
- 수입개방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농가들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로 농업협력화 증진
- 수출농업을 통하여 농업소득원을 해외시장으로 확대, 판로 안정화 및 농가소득향상

□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회

- 농산물 수출은 세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쿠즈네츠(S. Kuznets)는 각국의 경제발전사를 비교 연구한 결과,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, 농업·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
-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가 없으며,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농정을 병행하여 추진 중

나. 농산물 수출의 효과

□ 소득 증대

- 신규수요 및 판로의 창출과 안정화로 농업위축과 과잉생산 해소
- 해외시장개척은 신규시장의 창출효과로서 신규소비효과 극대화
- 국내 및 해외시장 수요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이 유지되고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
- '05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: $\Delta 97\text{억불} = (\text{수입}) 119 - (\text{수출}) 22$
- 새로운 농산물 수요 증대로 인한 농가소득증대
- 기존의 한정된 품목생산의 위험부담을 무역을 통하여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과 고소득 농업으로의 전환능력 배양
- 농산물 수출을 통해 생산 및 유통, 품질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

- 국내가격 지지에 따른 소득증대
 - 과거에는 잉여 생산분 수출로 가격조절이 되었지만 현재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여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, 지원함으로써 국내가격안정 및 한정된 수요확대
- 국민경제에 기여(네온티에프의 산업연관분석기법)
 - 75천명 취업유발, 39억불 생산유발, 16억불 외화가득 효과

□ 농업기술 수준 및 경쟁력 향상

- 세계 각국의 상품과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 도모와 품질향상을 가져오게 하여 차원 높은 농업기술수준 향상
 - 품질의 균일화, 규격화, 표준화 등 선진유통기술도입
- 수출을 통하여 살아있는 해외정보 획득과 경험 축적으로 안정적인 미래 식량수급원 확보
- 수출가능성은 곧 가격·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판단하는 척도이며, 수입농산물에 대한 방어적 역할과 대응력을 확보
 - 식물의 안전성, 친환경성, 건강지향적인 수입국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업 체제 유지
 - ISO, GAP의 농산물 생산에 적용하여 안전성 강화
- 기술·경영혁신을 통하여 전문경영체 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재편 가능
 - 동일한 품목에서도 농가간에 성장 격차가 크며, 건실한 전문경영체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
 - IT, BT, 지식, 정보를 활용하여 신상품·신수요·신시장을 창출하여 고소득으로의 도약 가능
- 우리나라 농산물의 비가격 경쟁력 향상 및 마케팅 다양화 가능
 - 같은 농산물이라도 저장·가공 등 수확 후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는 추세

□ 지역개발 촉진

- 수출대상국의 저변확대를 위해 수출상품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품목별 전업적 수출농단의 조성 및 운용이 요구됨으로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
- 농기업의 발전으로 청년 농업인의 탈농방지 및 귀농 기여
- 지역주민 고용 및 임금살포로 지역경제 향상
- 농산물 생산기반의 집단지향 확충으로 인한 관련 산업 발전

4.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

가. 생산단계

- ☐ 수출체제 구축을 위한 단지조성 및 종합지원 부족
 - 수급안정과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단지조성이 미흡
 - 전문생산단지의 컨테이너 단위 수출물량 확보 곤란
 - 단지당 평균면적('04) : 채소10.8ha, 과수84ha, 화훼4.2ha
 - 수출계약 재배를 주도할 생산자 조직화 정착 미흡
 - 공동 생산·선별·포장, 수출 등 일관체제 부재
- ☐ 고품질·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및 생산관리시스템 미비
 - 고품질·안전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애로, 신용구축 곤란
- ☐ 수출계약 재배를 주도할 생산자 조직화 미흡
 - 수출계약재배 및 이행지도관리 기구의 조직화 미흡
 - 전국단위의 품목별 생산단체의 미결성으로 수출가격 및 공급량조절 미약
- ☐ 수출용 신품종개발 및 보급체제 미흡
 - 수출용 별도 종자도입 및 신품종개발 미흡
 - 수출용 종묘의 수입대체를 위한 생산체제가 전무함으로서 수출가격 경쟁면에서 매우 취약
- ☐ 수출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속 수출 저해
 - 국내 유통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빈번을 신뢰도 실추
- ☐ 수출개발 및 육성기능의 활성화 지원 부족
 - 수출 초기의 위험부담 및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지속적·적극적 지원 미흡
 - 개발수출을 위한 체계적 연계체제 및 지원규모 미흡

나. 유통단계

- ☐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일괄저온시스템 구축 미흡
 - 국내생산에서 수출까지의 일괄 저온수송 체제 확보 미흡

☐ 수출물품의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미흡

- 수출상품의 품위향상을 위한 수확후 관리 등 기술보급 필요

☐ 수출용 포장상자의 고급화 미흡

- 수출용 포장상자의 강도가 약하여 파손으로 인한 상품성 손상 위험
- 디자인의 선진화 미흡으로 상품의 고급화 표시 미약

☐ 수출물류비 과다소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

- 컨테이너 적재 단위 미만의 소량 수출로 수출부대비 과다소요
- 물류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별, 포장, 운송 등에 물류비 과다 소요

다. 수출단계

☐ 수출국의 수입통관시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, 안전성 강화

- 채소·과실류의 잔류농약기준 초과로 수출대상국 검사강화
- 일본국 채소류 수출업체 및 농가의 등록 관리로 안전성 강화

☐ 주요 시장에서의 중국산과의 가격경쟁 심화

- 일본시장에서의 신선채소 김치 등의 가격경쟁 약화
- 동남아시아에서의 과실품질 고급화 및 가격경쟁 치열

☐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시장개척능력 결여

- 다수 영세업체가 소규모 사업추진으로 전문성 및 규모의 경제성 결여
- 과당경쟁 유발, 신규바이어 발굴 등 해외 마케팅에 취약

☐ 수출보험제도 활성화 부족

-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가 필요

☐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홍보 및 브랜드화 수출 미흡

- 한국상품의 공동브랜드화 및 마케팅 활동 미흡
- 한국산 상품의 이미지 홍보로 유명 브랜드화 인지도 미약

☐ 대형유통점과의 직수출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 미흡

- 수출품의 대부분이 중간수입상 및 도매시장내 상장 등으로 공급선 불안

5. 수출기반조성 전략

가. 원예수출단지 정비 및 확충

- ☐ 연중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채소류 수출거점단지 신규 조성
 - o 30-50ha 규모의 첨단시설단지를 지역 클러스터 방식으로 조성운영
- ☐ 정부지정 수출단지에 대한 평가, 정비 및 수출인센티브 상향 지원(15-5%)

나. 고품질·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

- ☐ 수출단지에 대한 친환경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및 생산이력제도 구축
- ☐ 수출품의 GAP지정 품목 및 대상농가지원 확대 (파프리카42, 방울9, 대미배 3)

다. 수출물류의 계열화 및 품질규격화 추진

- ☐ 수출단지와 APC 및 수출물류센타를 연계하는 수출물류유통망 구축
- ☐ 공동대표 브랜드를 통한 신뢰도 및 소형냉장컨테이너(12ft)의 운영확대

라. 신규 수출유망품목 및 시장의 발굴 및 육성

- ☐ 해외시장조사 및 국내생산 여건을 감안한 수출유망품목 개발 지원확대
 - o 대일수출 유망품목 : 여주(고야), 잠두, 트레비스, 엔다이크, 리크, 미나리, 산초아스파라가스, 기타 쌈채류 등
 - 수출희망농가 및 업체의 신규유망품목의 해외시장개척단계별 수출물류 및 해외시장개척비용의 지원 (시장테스트→시험수출→ 시장확대→시장정착)

마. 수출농산물 공급기지 건설

- ☐ 시설목적
 - o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라 첨단시설의 단지화를 통한 수출농업 활성화
 - o 생산시설의 규모화 첨단화, 집단지화 유도에 정부지원필요
 - o 단지조성 : 지자체가 담당하고 별도 영농조합 및 운영 위원 구성
 - o 시설규모 : 최첨단 자동화 유리온실 40ha(1.2차년 각 20ha로서 4년간 시설)
 - o 총사업비 : 1,060억원(국비530, 융자530:연리1%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)

□ 사업운영 계획

- 생 산 : 파프리카 6,000톤/년 (50kg/평)
- 판 매 : 수출 80%, 내수20%
- 소 득 : 20억원(매출액 114억원 -총원가 94억원:생산, 선별,포장, 감가상각, 관리비 등)

□ 기대효과

- 시설의 집단화로 생산성 및 수출상품성 제고
 - 수출품의 고급화, 농약안전성 확보, 공급가격 및 물량의 안정화
 - 선별 포장의 대형화로 품질의 균일화 및 규격화 출하효율 증대
 - 유리농장의 집단화로 생산성 증대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
 - 첨단원예생산단지 조성의 모델화 선도
 - 친환경적 생산기술의 적용 및 농가보급 선도
 - 의욕적인 농업인 정착 및 지역발전 기여
- 농가소득 및 고용창출
 - 정상가동년도의 조수익 114억원 및 순수익 20억원 실현
 - 연간 고용인원 70천명 및 308억원 임금살포
- 생산 및 수출확대
 - 연간 생산 6,000톤 및 수출 4,800톤(9,600천불)으로 확대

□ 생산 및 운영의 조직적 관리로 조기 안정화 및 컨설팅센터로 활용